

연일 빛나가는 비 예보... 시민 불만·혼란 '가중'

7일 연속 비 예측... 3일은 '맑음' "여행·약속 취소했는데..." 허탈 '정체전선 예보 난이도 상승' 해명 AI활용 모델 개발 등 대안 모색

최근 장마철을 맞아 기상청의 부정확한 날씨예보로 시민들의 불만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에 따른 예보 난이도 상승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기상예보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

15일 기상청이 발표한 '예보평가' 자료에 따르면 강수량합계는 △2019년 0.7 △2020년 0.69 △2021년 0.65 △2022년 0.64로 매년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해 0.7로 소폭 반등했다.

강수량합계의 강수 유무 판정기준은 강수가 3시간 내 0.1mm 이상 나타났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강수량은 이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지난달 28일 중기예보를 통해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광주·전남에 7일 연속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로 비가 내린 날은 2, 3, 5, 8일에 불과했다.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0mm 강수량을 보여 기상청의 비 예보에 주말 여행이



낮 최고기온 30도를 웃도는 날씨를 보인 15일 광주 남구 사직전망타워에서 바라본 광주 도심 위로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다. 나건호 기자

나 약속을 취소한 이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모(30)씨는 "2주 전, 1주일 내내 비가 예보돼 모든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했다. 친구와 함께 가기로 했던 주말여행도 취소했는데 막상 당일 이 되자 비가 전혀 오지 않아 억울했다"고 말했다.

박모(24)씨도 "연일 틀리는 기상예보 때문에 당초 약속을 잡기가 애매하다"며

"7월 말에 가족과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기상청 예보를 믿고 비행기 예약 날짜를 잡아도 될지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박성준(45)씨는 "기상청 예보가 틀리는 것에는 익숙하고 그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올해 장마철은 유독 심하다. 이렇게 매일 틀린 적은 올 여름이 처음인 거 같다"면서 "예보를 해 놓고 항상 틀리는데 기상당국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느낌이 든

다. 개선과 해결 방안이 시급하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통상 여름철은 기압계 변동이 심하고 대기가 불안정해 강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게 쉽지 않고, 최근엔 기후변화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며 예보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다.

기상예보의 부정확성은 '여름 특수'를 노린 지역 축제와 관광·레저업계, 농어민

들의 생업에도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상청은 정확한 예보가 어려운 이유로 예측하기 어려운 정체전선과 관측모델의 한계를 꼽았다.

기상청 관계자는 "정체전선은 약 100km 정도의 좁은 폭을 가지고 있다. 습도와 기온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 생기는 전선"이라며 "너비가 좁아 조금의 세력 변화에도 북상과 남하의 경계가 판가름 나는 등 위치 변동이 커 강수예보가 크게 빛나가는 경우가 잦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립기상과학원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지난 2021년부터 개발 중인 AI 기상예보 모델 '알파웨더'가 현재 기상관측에 활용되는 수치예보 모델을 대체·보완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해숙 국립기상과학원 인공지능기상연구과장은 "이달부터 실증에 들어갈 초단기 강수 예측 모델은 2014~2023년 레이다 영상 중 7년 치를 학습하고 2020년과 2023년 영상은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며 "정확도가 어느 정도는 확보됐기에 실시간 운영하며 실증해 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5일 기상청의 중기예보에 따르면 광주·전남은 오는 20일까지 비가 예보됐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광주-대구, 스포츠관광 교류 '달빛시리즈' 연다

오늘 프로야구 KIA-삼성전서 교류행사 양 지역 축제·명소 홍보 등 이벤트 다채

광주와 대구가 영호남 관광의 상생발전과 화합을 위한 달빛동맹 스포츠관광 교류 '달빛 시리즈' 2차 행사를 16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연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달빛 시리즈' 2차 행사는 1위 KIA 타이거즈와 이를 추격하는 삼성 라이온즈의 주중 3연전 첫날

경기에 맞춰 대구시와 공동으로 관광객 유치 활동을 펼친다.

이번 교류는 스포츠 관람, 여행 등을 통해 두 도시의 시민이 함께 상호 우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광주와 대구의 관광콘텐츠, 지역 축제·명소 홍보, 관광객 참여 이벤트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관광 캐릭터 '오매나'와 삼성 라이온즈 마스코트 '블레오'의 시구·시타에 이어 대구 관광 콘텐츠를 광주시민에게 알리는 교류의 장이 펼쳐진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2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광주 관광 홍보부스 관광캐릭터 '오매나' 포토존 인증샷 이벤트를 열

어 2000여명이 넘는 대구시민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또 구장내 대형 전광판을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양림동 등 광주 관광명소를 홍보하고, 추첨을 통해 비엔날레 티켓을 제공하는 등 '여행하기 좋은 도시 광주'를 소개했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이번 교류

를 통해 두 도시의 공동 관광마케팅을 더욱 활성화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풀썸도시 광주의 매력을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월 강기정 시장 주재로 스포츠·관광 분야 업무보고회를 열어 스포츠를 활용한 광주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프로스포츠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풀썸도시 광주 조성 과 도시이용인구 3000만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제5기 전남일보 소울푸드 아카데미

회원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000명
아카데미 Leadership (포럼 7회)
일정 Friendship (체육 행사 2회)
Patronship (전시 관람 1회)
교육기간 2024.09-2025.05
수강료 330만원(부가세 포함)
문의 전남일보 사업본부 (062)519-0730

세부 일정표	만찬 후 강연 (18시 식사, 19시 강연)
일자 및 회차	강사 분야
2024. 09. 26(목) - 포럼 1강	이광재 제35대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 정치
2024. 11. 28(목) - 광주비엔날레 관람 및 만찬	
2024. 12. 12(목) - 포럼 2강	최철 조선대 교수-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예술
2025. 01. 09(목) - 포럼 3강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경제
2025. 02. 06(목) - 포럼 4강	한재권 한양대학교 교수 로봇 공학
2025. 04. 03(목) - 포럼 5강	이경전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교수 정보(AI)
2025. 05. 08(목) - 포럼 6강	한근태 한스컨설팅 대표, 서울과학대학원 교수 인문
2025. 05. 29(목) - 포럼 7강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 사회